

개인사회시설도 후원금 내역 등 공개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권고 ... 사회복지법인 '봐주기식 감사' 막기 위해 전문가 선임토록

사례 1) 서울시 소재 00복지관은 2000년 1월~2003년 12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천만원을 허위 회계처리하고, 기자재구입 서류조작으로 2억8백만원을 부당 인출 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

사례 2) 전남 화순 소재 00 아동시설은 2001년 8월 14일~2007년 9월 28일까지 141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간이영수증 첨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1억5천여만원 횡령.

사례 3) 서울시 00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 20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천만원의 보조금 부당수령.

각종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회복지법인 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

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지도·감독 인력 및 법규상 한계도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생 1인당 최대 75만원(보육비 지원금 36만1천원+최상위층 39만4천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문 매매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중 복수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시설장이 3,003명으로 이중 일부 시설은 교육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의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봐주기 감사·묵인 등 형식적인 내부 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최광호 기자

화진라이온스클럽 창립 30주년 행사

화진라이온스클럽(회장 김영복)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8일 역대회장들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과 자매단체 및 자매클럽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진읍사무소 지하1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2부, 3부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1부에는 개회선언, 신입회원입회선서, 시상 및 봉사금전달 등이 이어졌고, 2부 만찬, 3부 자축연으로 끝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 26일 고성군 문화의 집 3층에서 노인학사 아카데미 과정 2011년도 노인대학 수료식이 열렸다.

2011년도 노인대학 수료식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는 지난 26일 고성군 문화의 집 3층에서 노인학사 아카데미 과정 2011년도 노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5개 읍면의 노인대학 수료자 40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 지옥희씨와 권연한씨가 노인대학장 표창장을, 황금선씨가 고성군 지회장 표창장

을 받았다.

김완식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훌륭한 강사진을 초빙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울곡전우회 간담회 개최 ...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전개

속초·고성·양양지역 울곡전우회는 지난 21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향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곡전우회는 88여단과 33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부대의 전통수립과 선후배상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전후방 해안경계 근무자의 사고예방 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 부대 현역 주임원사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사고예방 및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부대 방문 행사 참여로 현역 부사

관들과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회와 부대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백옥식 시민기자

어르신 244명 남이섬으로 일일나들이



개관 2주년을 맞이한 고성군노인복지회관(관장 최중협)은 경로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 244명을 모시고 일일 나들이를 다녀왔다.

일일 나들이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남이섬의 숲을 산책했으며, 걷기 힘든 어르신들은 전용열차와 전기자동차로 남이섬 곳곳을 다니며 가을의 맛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최광호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